

지난주에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방탕하게 낭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집에 둘째와 전혀 달라 보이는 큰아들이 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25절) 스스로 아버지를 섬기며 명을 어긴 적이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모범생이었습니다. (29절) 이 아들은 아버지와 항상 함께 하는 아들입니다. (31절)

이 첫째 아들은 누가복음 15장 1~2절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지칭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않는 종교적인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비유 속에 나오는 큰아들은 참 착하고 성실해 보이지만, 그 역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큰아들 역시 무언가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큰아들의 모습을 통해 종교인으로 가지기 쉬운 잘못된 모습을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1. 자기 자신을 아들이 아닌 종이라고 생각하는 마음

큰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버지를 잘 섬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를 '섬겨'라고 사용한 단어는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종처럼 섬겨왔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버지를 통해 받을 것 때문에 종처럼 섬긴 것입니다. 아버지께 대한 사랑과 상관없이 아버지의 재산에 관심이 가득한 것은 둘째 아들과 차이가 없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신앙의 동기가 됩니다. 반면, 종교인은 하나님께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깁니다.

2. 자신의 동생을 동생으로 보지 않는 마음

첫째 아들은 절대 자신의 동생을 '내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가 '내 동생'이라고 강조하십니다. 형에게 동생은 살림을 삼켜 버린 사람에 불과합니다. 형은 송아지를 잡은 아버지께 분노합니다. 동생이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집 안에 해를 끼친 인간에게 송아지는 과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 그는 송아지를 잡을 만큼 귀한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말로만 형제, 자매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게 됩니다.

3.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마음

첫째 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한없이 기쁘게 큰아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속마음을 알아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 동생을 찾아보겠습니다.' '내 동생을 사랑하겠습니다.'

말씀

이번 주 외울 말씀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2절)

통독

이번 주 성경 통독

9/20(월)	9/21(화)	9/22(수)	9/23(목)	9/24(금)	9/25(토)	9/26(주일)
겔 34-36	겔 37-39	겔 40-41	겔 42-44	겔 45-47	겔 48, 단1-2	단 3-4

QT

이번 주 QT 말씀

9/20(월)	9/21(화)	9/22(수)	9/23(목)	9/24(금)	9/25(토)	9/26(주일)
삿 21:16-25	딤후 1:1-11	딤후 1:12-20	딤후 2:1-15	딤후 3:1-13	딤후 3:14-4:5	딤후 4:6-16

나눔

목장 나눔 문제

1.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이나 은혜 받은 것을 나누어 주세요.
2. 내 안에 있는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을 나누어 주세요.
3.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아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결단을 나누어 주세요.